

역사관에 따른 남북한 향가 수용의 차이

엄인영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학과

- I. 서론
- II. 남북한 역사 인식 차이
- III. 향가 이해에 나타난 수용의 차이
- IV. 남북한 교과서에 나타난 향가
- V. 결론 및 제언

I. 서론

남북 분단과 동시에 통일을 위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북한 자료 부족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통일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거나, 혹은 통일 후 안정된 사회로 이끌 수 있다면 우리민족의 과제를 해결하는 일임과 동시에 세계 평화와 안녕을 도모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동안 통일에 관한 국어과의 논의는 남북한 어휘 차이를 비롯한 지식 차원의 내용들이 통일 대비 교육적 관점과 분리된 채 주로 이루어져 왔다. 본고는 이 점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통일 후 완충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통일 대비 국어 교육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국어 교육에 있어 도구 교과적 역할은 기존의 많은 연구 결과를 통일 교육에 효율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중심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통일 시대, 통합을 이끄는 소통의 중요한 역할도 국어 교과와 관련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통일 교육과 관련된 국어 교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본고는 통일과 국어 교육의 두 축을 이을 수 있는 도구적 역할로 고전시가문학 중 향가를 선택하였다. 고전시가문학은 고전서사문학에 비해 해석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고 음악적 요소가 있어 통일 국어 교육 내용으로 활용될 때, 소통의 부담이 작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또 남북 공동의 민족 문화 유산으로 소통의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보았다. 분단은 소통의 부재를 낳았고, 통일은 원활한 소통을 놓아야 하기 때문에 고전시가문학 중 향가를 통해 그 문을 열고자 한 것이다. 남북한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국어공부를 한다고 상상할 때, 고전문학은 역사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게 하며, 소통의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통일 신라의 역사적 가치를 통일 대비교육을 위해 살펴볼 수 있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역사와 언어를 공유하면서 때론 분단되고, 때론 통일되면서 살아 왔다. 통일 신라는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통일하며 역사적 맥락을 이어가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향찰식 표기가 생기면서 통일 신라의 대표 문학인 향가가 기록으로 남아 있다. 향가는 통일 신라 전·후 작품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고 남북한이 이를 어떻게 수용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런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 통일 신라의 역사적 가치를 찾고, 미래 통일 사회에 교육적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통일 교육의 기존 논의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북한의 이념과 관련된 내용이며, 다른 하나는 통일 대비 교육에 관한 내용이다. 먼저 전자에 해당하는 기존 논의는 김양희(2005)와 강혜선(2005)의 논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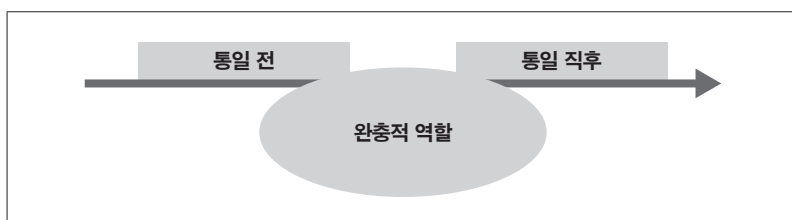
김양희(2005)는 북한 문학 교육의 목적, 방법, 내용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북한 문학을 분석하였다. 북한 문학은 사회주의 문학의 이념적 가치를 일관되게 추구하고 있지만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그 전개 양상에 차이를 드러낸다고 하였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이념체제에 놓여 있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북한 문학을 바라보아야 함을 말하고 있다. 강혜선(2005)은 통일 교육이 북한의 연구 성과를 정리, 소개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것들이 제출해 놓

은 새로운 전망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온전한 민족문학사를 서술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남북한의 연구비교를 통해 민족적 동질성이나 민족 공동체적 의식을 찾아내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커다란 문제의식을 말하고 있다.

다음은 통일 대비 교육에 관한 논의이다. 먼저, 남송우(2005)에서는 민족문학 연구의 측면에서 문학을 아우르는 연구가 이제는 본격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 문학 연구는 단순한 이해의 차원을 넘어 객관적이고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때라고 말한다. 그동안의 연구사를 검토하고 북한 문학을 민족문학으로, 나아가 통일 문학 혹은 통합문학의 한 대상으로 인식하여 연구하는 일이 필요함을 말한다. 정소연(2012)에서는 고전에 나타난 고전문학 수용 방식이나 교육 방안을 찾고자 하였고, 『삼국유사』를 통해 신라의 노래인 향가와 자료집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현대적 의의 및 교육적 적용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고, 설명식 방식에 나타난 수용 태도, 해석적 방식에 관련된 이야기, 창작적 방식에서 타인과의 소통, 문학의 일상화 태도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통일 교육에서 고전 문학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지에 관해 논의할 수 있다. 최홍원(2014)은 북한 문학 연구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태도는 실상에 대한 객관적 접근에 앞서 선입견이나 문학 외적인 측면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았다. 더군다나 북한 문학, 통일 문학에 대한 연구가 상당 부분 정치적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일이 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적인 수용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는 동질성 회복이라는 과제에 압도된 나머지 무리하게 공통분모만을 추출하려는 성급한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전문학 연구의 시각에서 북한의 문학 연구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임을 밝히고 있다. 한만길 외(1998)에서는 인간의 통일을 실현하는 일이 중요하며, 결국 교육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말하고 있다. 이는 통일이 외형적인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내면적인 통일과 관련되어 있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논의이다. 즉 내

면적인 가치관, 의식, 태도는 교육의 임무라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통일사회의 이념과 가치체계를 담고 있는 교과서 개발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이인제 외(2000)는 남북한 국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내용과 통합 방안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로, 남북한의 언어 정책과 사상적, 이론적 배경과 교육과정 비교 검토, 탈북 주민의 한국 사회 적응 현황을 토대로 교과서 통합 방향과 통일 단계에 따른 통합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남북한 국어과 교과서를 편찬 방향, 편찬 주기, 교과서 종류와 편찬 주제, 교과서의 체제와 내용 전개 방식, 학습 요소의 차원에서 상세히 비교하여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통합 전략 및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권순희(2014)에서는 ‘미리 온 통일 세대’라고 불리는 북한 이탈 주민의 언어 사용과 교육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다각적이고 다방면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또한 전 국민 차원에서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통일 이후 정책 차원에서 교육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논의하였다.

위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통일 대비 교육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때 통일 대비 교육의 범위는 통일을 준비하는 현재로부터 통일 직후 진정한 내적·외적 통일의 의식이 생기기 전까지 완충적 역할을 하는 준비단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과정은 통일 교육을 미리 준비하고 통일 직후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확장하는 개념이다.



〈그림 1〉 통일 대비 교육의 범위

본고는 통일 교육의 완충적 역할을 하게 될 향가의 수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남북한 역사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통일 신라의 정통성을 인정

하느냐, 부인하느냐는 교육에 많은 차이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통일 신라의 대표적 문학인 향가의 수용 범위와 내용 차이를 만들고 교과서에 반영하는 향가 작품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현상들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고, 통일 신라 시대 향가가 통일 대비 교육에서 완충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교육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남북한 역사 인식 차이

남북의 역사 인식 차이로 고전문학이 다른 관점으로 수용되고 있다. 특히 향가는 통일신라를 어떤 역사 인식으로 수용하였는가에 따라 그 차이를 뚜렷하게 보이는 갈래이다. 북한의 고전시가 문학 활동은 고구려의 정통성을 이어가고자 한다. 따라서 문학 활동과 문학을 바라보는 수용 관점이 고구려에 초점화되어 있다. 북한은 신라의 통일에 대해 외세의 힘을 빌려 통일을 이루었다고 하면서 통일의 정당성을 부정한다. 이는 향가 수용 양상의 차이를 가지고 왔다. 이처럼 역사 인식의 차이는 문학 수용의 인식 차이를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구려와 통일 신라에 대해 언급되어 있는 북한의 『고등중학교 3』의 역사 교과서를 살펴보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북한 교과서 속 역사 인식

제 3 장, 봉건사회, 첫 봉건국가들
제 1 절, 강성대국 고구려
<p>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p> <p>《지난 날의 우리 나라 력사에서 우리 민족이 가장 강하였던 시기는 고구려시대였습니다.》</p>

고구려는 B. C. 277년부터 668년까지 거의 1,000년동안 강성대국으로서의 위력을 떨쳤다.
고등중학교 역사 교과서 25쪽

2) 평양천도

《고구려는 일찍이 평양에 삼국통일을 위한 거점을 꾸리었고 427년에 이곳으로 수도를 옮겨 왔습니다. 평양천도는 삼국시기 우리 나라 역사발전에서 중요한 사변으로 되었습니다.》
고구려는 평양성건설을 크게 벌리고 왕궁을 지었으며 수도 방어성인 대성산성을 더욱 튼튼히 꾸리었다. 이와 함께 시조왕 동명왕의 무덤도 오늘의 평양시 력포구역 룡산리에 옮기었다.
고구려는 우리 나라 역사에서 가장 넓은 령토를 가진 나라로 되었다. 서쪽으로는 중국의 대릉하계선, 북쪽으로는 송화강일대가 경계로 되어 있었다. 이때 세나라의 총 면적이 약 2만㎢였는데 고구려는 그 중 56만㎢를 차지하고 있었다. 백제와 신라는 남쪽의 좁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고구려는 이렇게 령토를 확장하여 국토통일을 더욱 다그쳐 나갔다.

고등중학교 역사교과서 30, 31쪽

2. 동족의 나라들에 대한 배신과 신라-당나라의 《비밀협약》

《신라통치배들은 령토를 넓히려는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를 침략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던 당나라의 침략세력을 끌어 들이는 죄악적인 행동을 감행하였다.》

고등중학교 역사 교과서 48쪽

1) 고구려의 대한 배반

언젠가는 신라가 왕궁을 호위할 군사를 보내달라고 하자 고구려는 무술에 능한 군사 100여명을 특별히 뽑아 보내주었다. 그런데 신라는 배은망덕하게 고구려의 군사들을 살해하였던 것이다. 이제는 힘이 좀 강해 졌다고 지금껏 자기를 도와 준 고구려에 도발을 걸어온것이었다.

3) 신라의 배족행위

신라를 공격하였다가 폐한 백제는 동족의 나라인 고구려에 접근하였다. 고구려는 백제를 끌어 당겨 신라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화하였다.

특히 648년 신라의 김춘추가 당나라에 찾아가 천추에 씻지 못할 《비밀협약》까지 맺었다. 그 《비밀협약》내용은 신라-당나라가 연합하여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 대동강 북쪽은 당나라가, 남쪽은 신라가 차지한다는 것이었다. 신라봉건통치배들은 《비밀협약》에 따라 당나라침략세력을 끌어 들여 660년에 백제를, 668년에는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천추에 용납 못할 죄악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신라봉건통치배들은 령토를 넓히려는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신성한 우리 조국 땅에 처음으로 외세를 끌어 들이고 동족의 나라들을 멸망시킨 배족의 무리였다.

고등중학교 역사교과서 52쪽

4) 소설 《설씨의 딸》

소설은 무엇보다도 예로부터 자기를 낳아 키워 준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성과 남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으로 여기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살아 온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정신도 덕적풍모를 진실하게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늙고 병든 노인에게 군사복무를 강요하며 3년을 기한으로 나간 가실이를 오래동안 돌려 보내지 않고 모습조차 알아 볼수 없게 만든 신라 봉건통치배들이 얼마나 악착하였는가를 폭로비판하고 있다.

고등중학교 역사 교과서 54쪽

고등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는 고구려가 위대한 나라이며 오랜 시간 통일을 위해 노력해 왔음을 피력하고 있다. 그것은 고구려가 일찍부터 평양에 삼국통일을 위한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427년에 평양 천도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우리나라 역사발전에 중요한 사변이었다고 말한다. 또 고구려 영토의 면적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라고 설명한다. 반면 ‘백제와 신라는 남쪽의 좁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밝히면서 고구려가 영토 확장을 하면서 국토 통일을 위해 준비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신라의 통일에 대해서는 ‘배족 행위’라고 언급하면서 신라 봉건 통치 지배자들이 당나라 세력과 비밀협약을 맺어 688년에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천추에 용납 못할 죄’를 지었다고 가르친다. 이와 더불어 신라 봉건 통치지배자들은 영토를 넓히려는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신성한 우리 조국 땅에 처음으로 외세를 끌어들이고 동족의 나라들을 멸망시킨 ‘배족의 무리’였다고 밝히고 있다. 역사 교과서의 특이한 점은 ‘설씨의 딸’이라는 소설을 통해 역사 인식의 당위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그 내용에 인민의 아름다운 정신, 도덕적 풍모를 진실하게 보여 준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신라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다. 늙고 병든 노인에게 군사복무를 강요하였고, 3년을 기한으로 나간 ‘가실이’를 오랫동안 돌려보내지 않고 모습조차 알아 볼 수 없게 만들었다는 내용으로 ‘신라 봉건 통치지배자들이 얼마나 악랄하였는가’라고 비판하였다. 이처럼 북한의 역사 인식 속에서 당의 세력을 빌려 삼국을 통일한

신라가 정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평양에 맥을 잇는 고구려의 정당성을 밝혀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밝히고자 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남한의 2009 개정 한국사 교과서를 살펴보았다. 총 5권의 교과서를 살펴보았는데, 4권의 내용이 유사하였다. 그 내용으로 통일 신라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제시하여 학습자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나머지 1권에서는 통일 신라의 긍정적 측면만 제시되어 있었다. 따라서 본고는 긍정과 부정의 두 측면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는 4권의 책 중에서 비상 교과서 한 권을 선택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긍정과 부정의 두 측면을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학습자들에게 객관적 분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통일 대비 교육에서도 통일 이후 세대에게 미래 사회의 발전적 방향으로 모색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의 사료를 제공하는 것¹⁾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탐구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한 평가

●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읽고 아래의 과제를 해결해 보자.

자료 1 삼국 통일에 대한 긍정적 평가

- 신왕(김춘추)께서 백성의 참혹한 죽음을 불쌍히 여겨 임금의 귀중한 몸을 잊으시고 바다 건너 땅에 가서 황제를 뵈고 친히 군사를 청하였다. 그 본의는 두 나라를 평정하여 영구히 전쟁을 없애고, 여러 해 동안 깊이 맺었던 원수를 갚고 백성의 죽게 된 목숨을 보전코자 함이다.
- 『삼국사기』
- 김춘추가 김유신과 함께 신통한 계획으로 힘을 합하여 삼한을 통일하고 국가에 큰 공로를 세웠으므로 묘호를 태종이라 하였다.
- 『삼국유사』

자료 2 삼국 통일에 대한 부정적 평가

㉠ 다른 종족을 끌어들여 ㉡ 같은 종족을 멸망시키는 것은 도적을 불러들여 형제를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는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바이거늘, 슬프다! 우리나라 역사가여! 이를 아는 자가 매우 적구나, …… 민족 전체로 보면 민족적 역량과 ㉢ 영토의 축소를 가져왔으며, 외세와 결탁한 반민족적인 것이며, 사대주의적 나쁜 요소를 심었다.
- 신재호, 『독사신문』

〈그림 2〉 2009개정 남한의 한국사·비상교육²⁾

- 1) 남한의 교과서를 제시하여 어느 나라의 우월함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통일 대비 교육을 위해 통일 신라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제시하여 학습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 2) 도연희 외(2009), 『2009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비상교육, p. 56.

368 국어교육학연구 제52집 제1호 | 2017년 3월

남한의 교과서는 통일 신라의 평가를 다음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삼국사기』에 긍정적 평가가 있는데 그것은 ‘두 나라를 평정하여 영구히 전쟁을 없애고, 여러 해 동안 깊이 맺었던 원수를 갚고 백성의 죽게 된 목숨을 보전하고자 함이다.’와 같이 제시되어 있다. 부정적 평가는 『독사신록』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다른 종족을 끌어들이 같은 종족을 멸망시키는 것은 도적을 끌어들이 형제를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민족 전체로 보면 민족적 역량과 영토의 축소를 가져왔으며, 외세와 결탁한 반민족적인 것이며, 사대주의적 나쁜 요소를 심었다.’로 제시하였다.

북한의 교과서가 고려의 정당성을 밝히고, 신라 통일의 부정적 측면만을 제시하였다면, 남한의 교과서³⁾는 통일 신라의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의 두 가지 입장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어 객관적 평가와 동시에 토론의 장으로 이끌고 있다. 통일 후 교육도 소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두 가지 측면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남북한 역사 인식의 차이는 통일 신라의 대표적 문학인 향가 수용의 차이를 가지게 하였다. 북한의 정치체제와 관련된 수용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역사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다음 장을 통해 그 수용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 향가 이해에 나타난 수용의 차이

남북한 향가 수용 양상은 체제와 역사적 관점의 차이로 발생한다. 북한의 체제는 마르크스-레닌주의로부터 출발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이다. 이

3)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한국사 교과서 5권 중 한 권의 책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두 가지 입장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러한 체제⁴⁾는 인민성, 주체사상, 집단체제 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본고는 체제에 대한 논의보다는 역사 인식에 중심하여 수용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역사 인식의 차이도 크다. 남한의 경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최초의 국가임을 인정한다. 하지만 북한은 당의 세력을 통해 통일을 이룬 신라의 통일보다는 고구려의 문화와 고려의 통일을 인정하고 이를 높이 평가한다. 향가는 삼국유사에 기록물로 남겨져 있다. 일연은 고려의 사람으로 『삼국유사』를 기록하고 향가를 기록물로 남겼다. 북한도 이를 수용하고 있다. 『삼국유사』에 향가를 수용했던 일연의 기록물은 향가가 통일 신라를 거쳐 고려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역사적 흐름 속에 고려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향가를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것은 우리 역사의 흐름을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측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통일 후 이러한 논의를 통해 역사적 흐름 속에서 향가를 바라보고, 나아가 고전시가, 고전 문학 전체를 통일 교육과 화합의 장을 위한 소통의 도구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표는 통일신라 전·후 향가 수용 양상을 남북한 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남한의 자료는 조동일(1994: 152-159)의 『한국문화 통사』 1권, 북한의 자료는 박헌용(1989: 36-41)의 『조선문학 통사』(상)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 4) 북한 문학의 지향점은 전체 인민이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문학이라야 참다운 문학이라는 인민성의 원칙과 군중예술론, 노동 계급성의 지향에 있다고 김대행(1990)은 말한다. 북한 문학사는 주체사상 이전,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체사상 이전의 문학은 애국주의, 인민성 등을 역사주의적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며, 주체사상 이후에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합법칙적으로 체계화하는 데 집중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북한 고전 문학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표 2〉 신라 통일 전 향가 수용 양상 비교

향가명	남한	북한
서동요 작가: 백제무왕 연대: 신라 진평왕대 579-599 형식: 4구체 출전: 삼국유사 권2 무왕	엄격한 계급분화가 이루어진 시대에, 미천한 마통이가 해묵은 술책을 써서 존귀한 공주를 자기 아내로 삼겠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허용될 수 없는 일이 허용되도록 하는 것이 굳어진 사회의 장벽을 무너뜨리려는 문학적 상상력이다.	노래만을 보면 그 속에 풍유적 음향도 울리고 있으나 설화까지를 결부시켜 보면 이 노래는 고대 인민들의 근로 생활과 그들의 소박한 행복에 대한 꿈이 토대로 되어 있는 서정적 가요 작품임을 알 수 있다.
혜성가 작가: 용천사(승려) 연대: 진평왕 형식: 10구체 출전: 삼국유사 권5 용천산	혜성이 없다고 하면 나타난 혜성이 사라진다고 믿는 주술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	이 노래는 작가가 주술적 목적을 추구하여 부른 것이지만 오랜 옛날부터 왜구의 침입을 격퇴하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던 신라 인민들의 애국적 투쟁 사실을 전하고 있다.
풍요 작가: 미상 연대: 선덕왕대 632~647 형식: 4구체 출전: 삼국유사 권4 양지사석	이 노래는 일을 하면서 부르는 노동요이다. 흠을 운반하는 사람들이 불렀다고 하고, 또한 후대에는 방아를 찼으면서 불렀다고 했다. 노동요 또는 일노래는 노래 가운데 가장 먼저 생겼을 것이고 민요의 기본을 이룬다. 그런데 이 노래는 불교적 신앙심을 나타낸 노래이기 때문에 향가에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풍요〉를 통해서 향가가 상하층 문화의 합작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고통스러운 현실 생활에 시달리는 이 시기 인민들의 자탄(自嘆)과 신음의 읊조림 소리가 울리고 있다. 신라 도성안 남녀들이 영묘사에 흠집을 저서 나르면서 불렀다는 이 노래는 4구체 형식으로 된 노래의 하나이다. 비록 이 노래는 불교 '공덕'을 닦으러 온 사람들이 불렀다고는 하나 이 노래를 부른 당시 근로 인민들의 절박한 현실 생활 감정이 반영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상과 같이 통일 전 향가인 서동요, 혜성가, 풍요의 남북한 수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향가는 6세기 말경 향찰법의 창안으로 기록되기 시작하였는데 시가 발전의 전통과 함께 10구체 사뇌가 형식이 출현하게 되었다. 눈여겨볼 사실은 북한의 경우 통일 신라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통일 전 향가만을 수용하고 있음을 북한 교과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작품에는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 서동요와 풍요는 민중들의 삶을 표현하고 있고, 혜성가는 왜구를 우리의 힘으로 물리쳤다는 주체성을 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이들 작품이 우리 민족의 민중성과 주체성을 잘 표현해 준 작품이라고 보아 교과서에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향가는 통일 신라 이후 한층 더 발전하였다. 다음은 통일 신라 이후 향가 작품의 수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표 2>와 같이 남한의 자료는 조동일(1994: 154-176)의 『한국 문화 통사』 1권, 북한의 자료는 박헌용(1989: 56-75)의 『조선문학 통사』(상)를 중심으로 살펴본 내용이다.

〈표 3〉 통일 신라 후 향가 수용 양상 비교

향가명	남한	북한
원왕생가 작가: 광덕(승려) 연대: 문무왕 661~681 형식: 10구체 출전: 삼국유사 권5 양지사석	<p>이 노래는 광덕이 부르던 것이라고 했다. 하층민의 생활이 문헌에 전하는 희귀한 예라는 점을 제외하고서는 특별히 주목할 바 없다고 할 만하다. 그런데, 이와는 전혀 상반된 내용이 함께 나타나 있기에 문제이다. 광덕은 불도를 열심히 닦는 승려였고, 아내는 관음보살의 화신이라 했다. 신라 불교가 귀족 불교의 한계를 넘어서 미천한 백성에게도 수용되자 현실초극의 사고방식이 나타난 것이다.</p>	<p>내세에 대한 신념, 극락에 대한 동경 등의 불교적 환상으로써 작품의 기본 빠포스(파토스: '감격한 표현'이란 뜻의 러시아어)가 안받침(밑받침)되어 있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작품의 이러한 성격은 이 시기의 문학 일반의 많은 부분에 걸친 특성이며, 특히 이 시기의 인민 창작에 보편적인 환상성의 한 부분이다.</p>
모죽지랑가 작가: 득오(승려) 연대: 효소왕 692~702 형식: 8구체 출전: 삼국유사 권2 효소왕 죽지랑	<p>이 노래의 작가 득오 또는 득오실은 죽지랑이 젊어서 현역 화랑일 때 그 밑에서 낭도 노릇을 했다. 중앙정부 직속의 화랑도를 육성하면서 지방의 세력가를 억누른 조치를 전한다고 보았다. 익선은 득오를 관습에 따라 지배하기만 했으나, 죽지랑은 득오를 육친과 같이 따뜻하게 대해 인간관계의 변화도 함께 일어났다. 득오가 노래를 몇 십 년 후에 지은 연유는 밝혀져 있지 않으나 아마도 죽지랑이 세상을 떠나자 추모하는 마음을 노래로 나타내면서 젊은 시절의 고마웠던 일과 죽지랑이 자기에게 베푼 따뜻한 사랑을 생각해 더욱 서러워한 것 같다.</p>	<p>이 작품은 이미 죽지랑을 여인 작자의 비통한 심정, 생전의 죽지랑이 몸소 간곡하게 가르친 애국적 정신과 도덕적 품성에 행여 어긋나서는 안되겠다는 작자의 조심성, 그리고 멀리 앉아 '저승'에서 다시 만날 죽지랑을 그리는 마음으로 하여 잠도 이를 수 없는 작자의 강렬한 사모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p> <p>그러나 우리는 여기서도 원왕생가나 제망매가에서와 같이 내세에 대한 신념, 극락에 대한 동경 등의 불교적 환상으로써 작품의 기본 빠포스(파토스: '감격한 표현'이란 뜻의 러시아어)가 안받침(밑받침)되어 있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작품의 이러한 성격은 이 시기에 문학 일반의 많은 부분에 걸친 특성이며, 특히 이 시기의 인민 창작에 보편적인 환상성의 한 부분이다.</p>
현화가 작가: 검우노인 연대: 성덕왕 702~737 형식: 4구체 출전: 삼국유사 권2 수로부인	<p>민심이 소란하자 순정공은 힘으로 다스리고, 부인은 굶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두 사람이 함께 갔으리라고 생각된다.</p> <p>수로부인이 벼랑 위에 핀 철쭉꽃을 꺾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해서 애태울 때 암소를 몰고 가던 노인이 이 노래를 부르며 꽃을 꺾어 바쳤다. 노인이 나타나 고난을 해결해 주었는데, 그 고난은 민심을</p>	<p>이 시기의 인민 창작에 보편적이던 환상성이 인민 가요의 창작 경위와 결합된 대표적 기록은 8세기 초의 사건으로서 『삼국유사』 권2 수로부인(水路夫人)조에서 발견된다. 이 기록은 순정공이 강릉 태수로 부임하는 도상에서 그의 부인 수로와 인민들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전하고 있다.</p>

	<p>장악하지 못해서 생기고 또한 흉년 때문에 심해졌다고 할 수 있다. 자주빛 바위, 암소, 그리고 꽃과 연결되어 있는 노인은 자연의 풍요를 관장하고 민심을 대변하는 신격이므로 고난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다.</p>	<p>노인이 노래와 함께 꽃을 꺾어 준 것은 그의 사랑의 고백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환상성도 없다. 그러나 둘째 사건인 「바다보래(海歌)」에서 토속신앙의 숭배와 관련된 주술에 근거하여 나타나고 있다.</p>
<p>원가 작가: 신충(화랑) 연대: 효소왕원년 737 형식: 10구체 (현존 8구체) 출전: 삼국유사 권5 신충괘관</p>	<p>주술이 보편적인 이념을 추구하는 데 쓰이지 않고 개인적인 영달의 수단으로 변질되었음을 볼 수 있다. 효성왕 때에 이르면 명분이나 이상을 돌보지 않은 채 벌어지는 권력다툼이 한층 더 심해져 이러한 방향으로의 변질이 촉진되었을 것 같다.</p>	<p>신라 귀족 통치 기구의 내적 모순을 은연하게 발로하기 시작한 당시의 정세를 반영한다면, 월명과 충담이 활동하던 8세기 중엽에는 모순이 자못 격화하기 시작하여 통치자들은 자기들의 정권에 의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들은 중앙 집권제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하는 한편 확고한 통치 리념을 수립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하였는바, 이러한 정형은 당시의 저명한 시인들인 월명과 충담의 작품들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p>
<p>·남한: 도술가 ·북한: 두술가 작가: 월명사(승려) 연대: 경덕왕 9년 형식: 4구체 출전: 삼국유사 권5 월명사, 도술가</p>	<p>해는 군주를 상징한다. 해가 돌이 나타났다는 것은 왕위에 대한 도전이 생겼다는 뜻이다. 왕으로서의 그 위기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술적이고 종교적인 대응책도 마련해야 했다.</p>	<p>신라의 인민들이 부르던 집단적 노동민요, '두렛노래' 신라 음악과 시가의 중심에 있던 '사뇌가'는 경주 일대 '새뇌' 지방 인민들의 집단 구전민요들 가운데 하나이다.</p>
<p>찬기파랑가 작가: 총담사 (승려) 연대: 경덕왕대 742~750 형식: 10구체 출전: 삼국유사 권2 찬기파랑가</p>	<p>〈삼국유사〉에 전하는 향가 가운데 유독 〈찬기파랑가〉만은 '사뇌가'라는 말이 붙어서, 〈찬기파랑가사뇌가〉라고 했다. 이 노래야말로 사뇌가의 전형적인 작품이거나 사뇌가가 갖추어야 할 높은 뜻을 가장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닌가 한다. 여기서 높은 뜻은, 미적 범주 중에서 숭고미 이상으로 추구하는 표현이다. 그런데 이 노래에서는 숭고와 함께 비장이 보인다. 화랑이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숭고한 이상을 비장하게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다.</p>	<p>화랑의 애국주의 정신과 덕행을 찬양한 노래이다. 주인공 기파랑의 사적은 알려지지 않으나 그 대신 작품 자체가 기파랑의 활동과 관련된 장소인 '일오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기파랑을 찬양하는 시이다. 벼슬과 재물을 쫓아 이리저리 동요하지 않는 맑고 아름다운 성격의 기파랑, 항상 높은 이상에서 사는 고매한 정신의 기파랑을 시인은 격조 높은 아름다운 언어로 극력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파랑이 일찍이 일오내 벼랑에서 보여준 모범을 시인 자신도 본받으려 한다는 것을 시인은 맹세하고 있는 것이다.</p>
<p>제망가 작가: 월명사 (승려) 연대: 경덕왕대 742~765</p>	<p>죽은 누이를 위해서 재를 올릴 때 부른 것인데, 월명사가 신통하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소개했다. 이 노래를 부르자 문득 광풍이 일어나 제단에 놓인 종이돈이 서쪽으로 날려 갔다고 했다. 그래서 죽은</p>	<p>작자는 죽은 누이를 애도하는 마음을 아주 선명한 형상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보여주는 풍부한 릴리세즘은 향가 시인들이 도달한 높은 서정시의 경지를 대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p>

<p>형식: 10구체 출전: 삼국유사 권5 도술가, 월명사</p>	<p>누이가 그 돈을 노자로 삼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노래사실에는 그런 주술적인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p>	<p>마지막 분절에서 누이를 잃은 서정적 주인공의 비통한 감정을 불교적 관념에 기초한 부질없는 위안으로 바뀌고 있다. 이것은 당시 널리 퍼지고 있던 불교사상의 부정적 영향의 반영으로서 중이었던 작가의 세계관적 제한성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었다.</p>
<p>안민가 작가: 총담사 (승려) 연대: 경덕왕대 742~765 형식: 10구체 출전: 삼국유사 권2 경덕왕, 총담사</p>	<p>나라를 편안하게 하는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 총담사가 나타났다. 그 당시의 문제는 신하가 임금의 자리를 위협하는 도전이 나타났으므로 임금은 아비요, 신하는 어머니라 백성을 살릴 수 있다고 하면서, 백성 쪽의 사정을 들어 신하의 도전을 막는 명분을 삼았다. 이 향가는 정치상황과 밀착되어 구체화되었다.</p>	<p>총담이 '안민가'를 창작한 동기는 진정한 우국지사들 거리에서 찾으려고 한 시도와 결합되어 있다.</p> <p>'안민가'는 이렇게 고결한 시인인 총담이 통치자와 인민간의 관계에 대한 그의 이상, 특히는 인민의 행복을 염원하는 그의 아름다운 마음을 노래한 것이다. 유교 정책의 기반적인 공염불로 화한 후세에서와는 달리, 촌락 공동체적 잔재가 아직 완전히 가시지 못했으며, 왕의 통치 이념이 즉장적 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당시에 있어 이러한 설득력 있고 솔직한 진언은 충분히 긍정적이며 저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p>
<p>천수대비가 작가: 회명(부녀) 연대: 경덕왕대 742~765 형식: 10구체 출전: 삼국유사 권3 분황사 천수대비</p>	<p>눈 먼 아이를 안고 분황사 천수관음화상 앞으로 가서 아이로 하여금 노래를 지어 빌게 하니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연이다. 다섯 살 먹은 아이가 노래를 지었다는 것은 종교적인 설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야 기도의 효험을 입증할 수 있었던 거 같다. 아이 어머니가 노래의 작자라고 보는 것도 무리이다.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무언가 별다르게 소개하는 말이 남았어야 어울린다. 이치에 맞게 해석하자면, 분황사의 어떤 승려가 만들어놓은 사녀가 형식의 기도문을 어머니에게 알려 아이가 외도록 하고서, 아이가 지었다 하고, 그 결과 대단한 이적이 일어났다고 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p>	<p>불교적 색채의 노래들은 모두 불교의 교리를 설파하고 부처의 공덕을 찬미함으로써 통치계급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는데 복무해왔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법적 보호 밑에 선행하고 신분이 천하고 권세 없는 사람들에게 불행과 고통만이 강요되는 불합리하고 모순에 찬 사회 현실 속에서 날로 증대되는 인민들의 불안과 반항 의식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을 저들의 지배와 수탈에 순종시키기 위한 통치지배자들의 이해관계가 작품에 반영되었다.</p>

위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남한의 향가 수용은 작품 자체에 대한 내용은 물론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북한은 인민의 결속, 노동, 정치 체제 등을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여 수용하였다. 특히, 북한은 '통치 지배자들의 횡포'와 '불교'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

다. 따라서 이러한 수용의 차이가 남북한 국어 교과서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V. 남북한 교과서에 나타난 향가

1. 남한 교과서 분석

2009개정 국어과 교과서 중 고등학교 과정 속에 향가가 수록되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작품이 주로 수록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고등 I, II와 선택 교과인 문학교과서를 살펴보았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4〉 2009개정 교육과정 국어 I, II의 향가 목록⁵⁾

교과서	출판사	저자	단원명
국어Ⅰ ⁶⁾	(주)지학사	이삼형 외	해당 단원명 없음
국어Ⅱ ⁷⁾	천재교육	김종철 외	1. 나와 세상을 바꾸는 글 (1) 문학의 힘-제망매가 (월명사)
	비상교육	한철우 외	5. 전통을 따라 흐르는 우리의 한국 문학 (1) 제망매가-월명사
	좋은책 신사고	이승원 외	3. 국어의 발자취를 따라서 (1) 국어가 걸어온 길 활동 1 고대의 국어 생활 - 고유 명사의 표기/향가 '서동요'

5) 2009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2013. 8. 30. 출판된 교과서들이다.

6) 천재교육 김종철 외, 천재교육 박영목 외, 비상교육 한철우 외, 비상교육 이승철 외, (주)미래엔 윤여탁 외, 두산동아 신동훈 외, 좋은책 신사고 이승원 외, (주)교학사 김중신 외, 창비 문영진 외, 해냄에듀 조현설 외를 살펴 보았으나, 해당 단원명 없었다.

7) 해냄에듀 조현설 외, 천재교육 박영목 외, (주)지학사 II 이삼형 외, (주)미래엔 II 윤여탁 외, (주)교학사 김중신 외, 두산동아 신동훈 외 교과서 해당 단원명 없었다.

국어 I 교과서에는 (주)지학사 교과서 외의 10권에 수록된 향가 작품은 없었다. 이는 국어 I 교과서는 ‘독서/작문, 문학, 문법, 화법/작문 등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기초적 국어 지식 능력의 학습을 위한 것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국어 II의 경우 많은 교과서에 수록된 것은 아니지만, 지식적 측면과 함께 역사적 문헌을 제시한 교과서에서는 향가가 수록되어 있었다. 이는 한국인의 특수성과 뿌리를 찾고 우리 문학을 교수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교과서 대단원명으로 ‘역사’, ‘발자취’, ‘전통’과 관련된 단어가 포함된 대단원에는 향가가 소단원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본고가 확인할 수 있었던 9종의 교과서 중에는 총 3개의 교과서에 역사와 관련된 우리 문학을 소개하면서 향가를 수록하고 있었는데, 그 작품은 <제망매가>에 한정되어 있었다. 간단하게 향가에 관해 소개하면서 활동 영역으로 <서동요>를 소개한 교과서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제망매가>에 한정되어 수록된 것이 인상적이었다. <제망매가>는 누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동생이 지어 부른 10구체 향가이다. 향가 중 발전된 형태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과 영혼에 대한 인식이 잘 형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에게 적합하다고 보았을 것이다.

〈표 5〉 2009개정 교육과정 문학 속 향가 목록⁸⁾

교과서	출판사	저자	단원명
문학 교과서	천재교육	김윤식 외	II.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 (2) 한국 고전 문학 갈래의 전개 01 천가파랑가(충답사)
	천재교육	정재찬 외	II 한국 문학의 이해 2. 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 (1) 서정 갈래의 흐름 • 제망매가(월명사)
	창비	박종호 외	III 한국 문학의 역사 1 고려~고려 시대의 문학 (2)제망매가-월명사

8) 2009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2013. 8. 30. 출판된 교과서들이다.

문학교과서 9종을 통해 살펴본 향가 수록 작품은 〈찬기파랑가〉5종, 〈제망매가〉가 4종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었다. 국어 II에 주로 수록되었던 〈제망매가〉는 문학 교과서에서도 수록되어 있었다. 문학교과서에 새롭게 수록된 작품은 〈찬기파랑가〉이다. 감상부분에서 〈모죽지랑가〉가 수록된 교과서도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남한의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향가 작품은 〈서동요〉, 〈제망매가〉, 〈찬기파랑가〉, 〈모죽지랑가〉 등의 작품이다. 서동요는 통일 전, 그 외 작품은 통일 후 창작된 작품이다. 이는 남한이 통일 신라의 정통성을 인정하여 이들 작품을 수용하였고, 교육적 적합성을 획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국어 II와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향가를 다음과 같이 예시로 제시하였다.

〈표 6〉『국어 II』와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향가

교과서	출판사	저자	향가명
국어 II	비상	한철우 외 (2013)	제망매가
	좋은책 신사고	이송원 외 (2013)	서동요
문학	지학사	권영민 외 (2013)	제망매가 찬기파랑가 모죽지랑가
	상문연구사	김대웅 외 (2013)	원왕생가

위 교과서에 수록된 향가는 향찰표기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과 개별 작품, 그에 해당하는 설화 등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특히 향찰 표기와 관련해서는 기록문학과 관련된 우리 문학의 발전된 형태를 제시하였고,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역사적 관점에서도 구전되던 우리 문학을 기록문학화 하였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며, 설화 내용과 더불어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향찰 표기로 기록된 향가는 남북이 공통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록 문화유산으로 통일 이후 공동 연구는 물론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2. 북한 교과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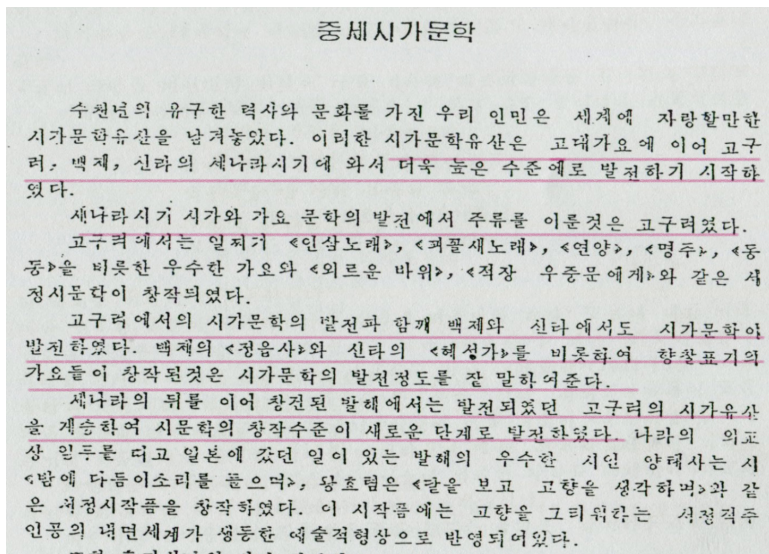
북한의 교과서는 북한체제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전체적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큰 틀 속에서 고전 작품에 대한 교과서 내용은 작품 자체에 대한 소개와 어휘 풀이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교수자는 정확한 지식의 전달과 수업 설계의 역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학습자는 지식을 잘 습득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학교 교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를 인식하고 그 틀 속에서 교과서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학제는 소학교 4학년, 중·고등학교를 합해 6년이던 것이 최근 학제개편이 되어 소학교 5년, 초급 중학교 3년, 고급 중학교 3년으로 11년이 되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초등 6, 중학교 3, 고등학교 3의 체계와 더 유사해졌기 때문에 통일 후 학제로 인한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통일 교육을 위해서 교과서 ‘고등중학교 1에서 3’과 ‘고등중학교 문학 1에서 6’을 통해 향가 수록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고등중학교 4’에 향가에 대한 짧은 글이 소개 되어 있었다. 다음은 ‘고등중학교 4’ 교과서 차례에 중세 시가 문학으로 향가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제시한 자료이다.

자 려	
고대중세문학	
고대가요와 고대중세설화문학.....	3
공후인	6
주몽전설	6
중세시가문학	11
경음사	15
심산별곡	16
시조	18
관동별곡	19
강강수월래	21
방랑의 노래	22
적선론의 오막살이	33

〈그림 3〉 북한 교과서 문학 『고등중학교 4』의 차례

교과서 차례에는 ‘중세시가문학’이라 하여 <정읍사>를 비롯한 다양한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교과서 내용에는 향가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만 제시되어 있고 실제 수록 작품은 없었다. 문학 교과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향가 작품은 ‘수천년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가진 인민의 위대한 문학유산’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통일 신라의 대표적 문학 형태로 향가를 설명하지는 않는다. 북한은 삼국 시대 시가와 가요문학의 발전에서 주류는 고구려였고 세 나라의 뒤를 이어 창건된 나라는 발해라고 말한다. 발해는 고구려 시가문학을 계승하여 시문학 창작 수준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켰음을 언급하고 있다. 북한이 고구려의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나, 통일을 이루었던 통일신라의 대표적 작품인 향가를 ‘신라’의 문학이라고만 규정하기에는 통일신라시대의 다양한 작품이 기록 문학으로 남아 있다. 다음 <그림 4>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북한이 고구려 정통성을 인정하여 문학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교과서 내용이다.



- 밑줄 친 부분 -

…… 시가문학유산은 고대가요에 이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세나라시기에 와서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세나라시기 시가와 가요 문학의 발전에서 주류를 이룬 것은 고구려였다.

……중략……

고구려에서의 시가문학의 발전과 함께 백제와 신라에서도 시가문학이 발전하였다. **(A)백제의 <정읍사>와 신라의 <혜성가>를 비롯하여 향찰표기의 가요들이 창작된 것은 시가문학의 발전정도를 잘 말하여준다.**

세나라의 뒤를 이어 창건된 발해에서는 발전되었던 고구려의 시가유산을 계승하여 시문학의 창작수준이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였다.

〈그림 4〉 북한 문학 교과서 『고등중학교 4』 11쪽의 내용(밑줄은 연구자가 추가함)

위의 교과서 내용 중 (A)부분에 소개된 작품과 향찰 표기에 대한 짧은 설명은 남한 학자들의 연구에서 오류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오해의 요소를 분석하는 과정 속에서 북한의 여러 자료를 찾아볼 수 있었고, 찾은 자료를 통해 통일 대비 국어 교육의 내용을 더욱 확장시켜 볼 수 있었다. 그 과정으로써 북한이 문학 교과서에 <혜성가>만을 수록하고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향가 분류에 있어 오해가 있었던 사례를 제시하여 본 고의 논의를 더욱 구체화하였다. 다음은 교과서에 짧게 제시한 향가 작품에 대한 분류와 그에 관한 논의이다.

〈표 7〉 북한 문학 『고등중학교 4』 교과서에 있는 향가

갈래	형식	작품명
중세 시가	향찰 표기	정읍사 ⁹⁾
		혜성가 ¹⁰⁾

9) 북한교과서는 〈표 7〉과 같이 향찰 표기에 중심을 두는 것으로 보이나, 남한은 아래 표와 같이 작품의 갈래, 가사의 수용적 관점에 초점을 둔다.

갈래	작품명
백제가요	정읍사
향가	혜성가

북한이 <혜성가>만을 문학교과서에 실은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III장 서두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고구려 정통성을 잇는 북한이 통일 신라 작품을 수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시적 관점과 작품 자체의 내용에 관한 미시적 관점으로 논의할 수 있다. 먼저 거시적 관점에서는 통일 신라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입장에서 화랑정신과 그런 투쟁적 정신을 담은 혜성가가 통일 신라 전의 작품이라는 것에서 25개의 향가 중 수용 가능한 작품으로 선정되었을 것이다. 두 번째 미시적 관점으로, ‘혜성가’의 노랫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북한은 <혜성가>의 내용이 왜군을 화랑의 기백과 정신력으로 물리친 신라인들의 투지와 투쟁적 정신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혜성가가 북한 교과서에 실을 수 있는 유일한 향가였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북한의 교과서는 남한의 경우와 달리 학습활동이나 연습활동이 없다. 주로 암기 위주의 교육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은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 간 소통의 기능을 부족하게 만든다. 통일 대비교육에서는 북한의 교과서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교수방법을 합리적으로 수용하여 남북한 어느 한 쪽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보다는 통일 시대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해 보는 일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교류하며 같은 문학을 공유하고 있는 통일 시대 국민으로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또한 모색해 볼 일이다.

다음으로 위의 표에 제시되어 있는 <정읍사>에 관한 내용이다. 우리에게 백제의 가요로 알려진 <정읍사>가 북한교과서의 애매한 문장으로 인해 남한 연구자에게 향가로 분류된 경우¹¹⁾이다. 김양희(2004)의 ‘북한의 문학

10) 「문학 고등중학교 4」, 향가에 대한 한 문장 설명과 함께 <정읍사> 작품이 소개되어 있다.

11) 『악학궤범(樂學軌範)』 권5에 실려 한글로 전해지고 있는 <정읍사>는 조선시대 궁중음악으로 쓰였다. 신라가 통일 하면서 백제의 노래를 수용하였고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남한의 북한에 대한 연구에서 ‘정읍사’와 관련된 지문이 짧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북한 교과서 고등중학교 4』에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그

교육’에 관한 논의에서 북한 교과서의 향가 분류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표 8〉 향가 분류에 대한 오류¹²⁾

제목	문종	학년	내용	주제	작가
공후인	고대가요	문학 고등중학교 4학년	물에 뛰어든 뱃사공과 따라 죽은 아내의 이야기	님에 대한 사랑	
정읍사	향가	문학 고등중학교 4학년	님을 걱정하며 기다리는 여인의 마음	님에 대한 사랑	
청산별곡	고려가요	문학 고등중학교 4학년	고통스러운 삶의 비애와 이상향 동경	이상향 동경	

이는 문장의 애매성과 함께 〈정읍사〉가 향가 작품인 〈혜성가〉와 함께 제시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더욱이 향가 〈혜성가〉에 관한 작품은 없지만, 〈정읍사〉 작품은 향가에 관한 짧은 설명과 함께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향가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자료를 더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통일 이후 향가에 관한 논의를 할 때, 학문적 교류의 부족으로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음을 밝히고 통일 이후, 활발한 학문적 교류를 통해 오류를 분석하고 수정하여 발전적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 과정은 남북한 소통의 계기가 될 것이며, 학문적 통합과 더불어 사회 통합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향가는 아니지만, 애매한 문장으로 향가와 함께 제시되어 있는 〈정읍사〉에 관한 내용이다. 본고는 위와 같이 북한 교과서를 통해 〈정읍사〉가 향가처럼 해석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다음 표는 이러한 애매한 문장과 함께 제시된 정읍사 작품과 어휘 풀이에 관한 내용이다.

림 4) 참고.
 ‘고구려에서의 시가문학의 발전과 함께 백제와 신라에서도 시가문학이 발전하였다. 백제의 〈정읍사〉와 〈혜성가〉를 비롯하여 향찰표기의 가요들이 창작된 것은 시가문학의 발전 정도를 잘 말하여준다.’
 12) 김양희(2004), 「북한의 문학 교육: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시 교육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15, 20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정 음 사

달하 노피곰 도다샤
어기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전저재 너리신고요
어기야 큰대를 드대올새라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어느이다 노코시라
어기야 내 가는데 짐그랄새라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달하—달아. <하>는 <아, 이여>와 같은 호격도.
노피곰—<노피>는 <놀이>, <곰>은 <마다>와 비슷한 뜻을 가지는 단어로서 말이 오는
칸이 아니고 언제나 높이 들기를 바라는 뜻이 있다.
도다샤—돌아서. <샤>는 존칭의 토.
어기야—힘든것을 풀 땀의 감동사인 <어기여차, 어여차>와 비슷한 감동사.
머리곰—멀리멀리.
어강도리—아무런 뜻도 없이 노래의 후렴으로 쓰이는 소리마디의 한 묶음.
아으—<아>와 맞먹는 감동사.
다롱디리—아무런 뜻이 없는 소리마디의 묶음.
전저재—은 장터 또는 은 장마당. 여기서 <전>은 한자의 온전전자이고 <저재>는 <지
자> 즉 장마당이라는 뜻.
너리신고요—다녀시지 않는지요.
큰대—질척질척한곳. <큰대>는 <전재> 곧 전창. 이 가요에서는 어떤 재태락 곤난(재
당)을 비겨이른 칸.
드대올새라—더티올새라. (더티올새라)
어느이다—어디다가 또는 어디다
짐그랄새라—<짐그>는 <저물다>. 저물면 어둡워지므로 <잡잡할새라>이다.

〈그림 5〉 북한 교과서 『문학 고등학교 4』 중세시가 정음사¹³⁾

위의 자료에서도 보았듯이 독자의 반응을 유도하는 질문이나, 보충 자
료는 없기 때문에 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통일 이후, 교과
서를 어떻게 구성해 볼 것인가에 관한 논의도 통일 준비 과정에서 충분히 논
의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의 오류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과서 외의 자료를 통해 확인
하고자 하였다. 먼저, 북한의 ‘교수요강’을 살펴보았다. 국어문학과 관련하여

13) 『문학 고등학교 4』, 차례에 중세시가문학에 첫 번째 순서로 나와 있는 〈정음사〉 작품과
어휘 해설에 관한 내용이다.

주로 교사들이 보는 책이며, 고등중학교 4~6학년을 가르치기 위한 것으로 1984년에 제작된 책이다. 이 책에는 <정읍사>가 백제의 가요로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었다. 교수 요강 본문에는 다음과 같이 중세시가문학에 관해 해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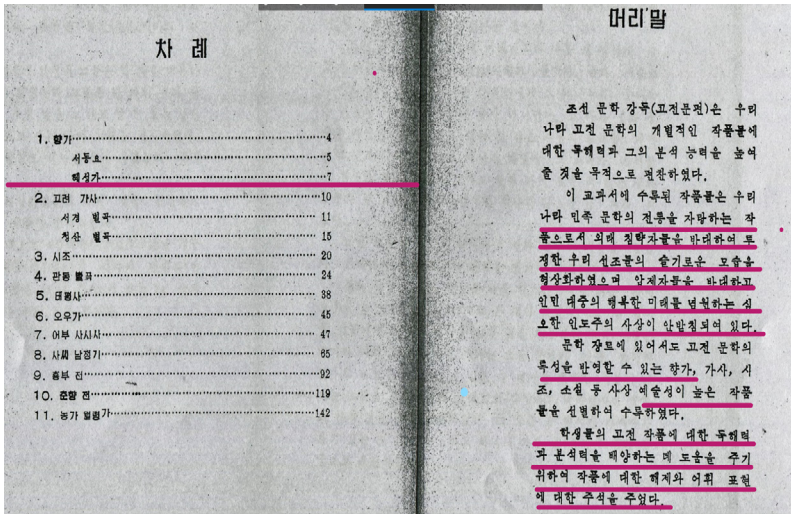
〈표 9〉 교수요강: 우리나라의 유구한 문학유산¹⁴⁾ 중세시가문학

중세시가문학에 대한 초보적리해
고구려의 《인삼노래》의 기본 내용, 백제의 《정읍사》, 초보적리해
- 중략 -
정읍사
가요에 섞여진 어려운 말들의 뜻풀이, 가요의 기본내용 외우기

위와 같이 ‘교수요강’에서 <정읍사>가 백제의 가요라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읍사>는 우리나라 문학교과서에도 많이 제시되어 있는 작품이라 향가는 아니지만 통일 후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작품이다. 북한의 교수 시간 배정표를 확인해 본 결과 <정읍사> 수업과 관련하여 2시간 정도를 활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통일 교육 수업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향가에 관한 논의이므로 <정읍사>에 관한 논의는 추후 통일 교육을 위해 더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다음으로 북한의 교원들이 공부하는 『국문강독』을 살펴보았다.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향가는 <서동요>와 <혜성가>였다. 본고가 위에서 『문학 고등중학교 4』에 <혜성가>만이 언급되어 있는 이유를 두 가지로 짐작해 보았는데, <서동요> 역시 비슷한 이유에서 수록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즉, 신분의 차별이 없는 만남을 이루는 <서동요>와 화랑정신과 주체적 투쟁의식이 포함된 <혜성가>의 내용이 통일 신라 전의 작품이기 때문이라는 맥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4) 미상(1984), 『교수요강』, 8-9, 교육위원회 보통교육부.



차례	머리말(밑줄 친 부분)
1. 향가.....4 서동요.....4 혜성가.....7	... 민족 문학의 전통을 자랑하는 작품으로서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한 우리 선조들의 슬기로운 모습을 형상화하였으며 압제자들을 반대하고 인민 대중의 행복한 미래를 념원하는 심오한 인도주의 사상이 안받침되어 있다. ...중략... 고전 문학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향가 ... 예술성이 높은 작품들을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학생들의 고전 작품에 대한 독해력과 분석력을 배양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작품에 대한 해제와 어휘 표현에 대한 주석을 주었다.

〈그림 6〉 『국문강독 2』-교원대학용¹⁵⁾

교과서에는 ‘향가’ 작품을 수록하고 있지 않지만, 교수 요강과 교원들이 공부하는 국문 강독에서는 향가 작품을 수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읍사>가 백제 가요라고 명확하게 제시 되어 있어, 『문학 고등중학교 4』에 애

15) 미상(미상), 『국문강독: 교원대학용』, 2-3.

매한 문장을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었다. 통일 후 고전 시가의 역할을 기대할 때, 제한된 자료이지만 정확하게 파악하여 오해를 없애고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아울러 수용양상이 왜 달라졌는지, 통일 후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지에 관해 함께 고민하는 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북한도 우리문학의 전통과 선조들의 지혜, 예술성 등을 향가를 통해 인정하고 있다.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하고 통일 대비 교육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전통은 예전의 전통을 통해 오늘 현재 새롭게 구성해 나가는 것이므로, 통일 시대에 새로운 교육적 전통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향가를 통해 하나의 새로운 전통을 이어가고자 논의한 것이다. 향가의 작품 중 통일 교육의 완충적 역할로 <서동요>와 <혜성가>작품을 선택해 볼 수도 있을 것이며, 더 다양한 작품을 통해 소통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통일 전부터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구체적 교수·학습 방안에 대해서는 후속 논의가 더 필요하다.

V. 결론 및 제언

본고는 통일 대비 교육을 위하여 통일 신라를 대표하는 문학 작품인 향가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향가를 중심에 둔 이유는, 첫째 독일의 사례를 통해 보았던 통일에 대한 논의를 우리의 역사인 통일 신라를 통해 고찰하고자 한 것이다. 두 번째, 남한과 북한이 통일 신라에 대한 역사 인식의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향가 수용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통일 교육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인식의 차이를 인지하고 이를 어떻게 교육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미리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남북한 역사교과서를 살펴보고, 역사 인식이 정통성에 관한 문제로 나타난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한은 통일 신라를 인정하는 데 반해, 북한은 통일 신라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교과서 수록 작품과 내용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였다. 남한의 한국사 교과서에는 최대한 통일 신라의 통일 과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제시하고 학습자들에게 객관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역사 교과서에는 당나라의 세력에 의해 통일을 이루었으므로 통일 신라를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민족의 배신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로 인해 향가 수용의 양상에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국어 교과서를 살펴보았다. 남한은 통일 전 향가와 통일 후 향가가 골고루 수록되어 있었지만, 북한의 경우는 통일 전 향가만이 수록되어 있었다. 향가 해석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한이 설화와 이야기 중심, 작품 자체에 초점을 두고 열린 해석을 할 있도록 논의가 되었다면, 북한은 민중의식, 노동, 민족애, 정치 체제적 논의가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북한의 『고등중학교 4학년 교과서』에 향찰 표기 된 가요로 <정읍사>와 <혜성가>를 설명만 하고 있고 작품 수록으로 <정읍사>만 소개하고 있어, <혜성가>와 <정읍사>가 동시에 향가인 것처럼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북한의 교수 요강과, 교원들이 보는 고전 강독 책을 확인해 보았다. 두 권의 책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북한에서도 <정읍사>는 백제의 노래라고 설명되어 있었다. 또한 북한의 교수 요강을 통해 볼 때, 고전시가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북한 교육 연구자들에 의하면 북한의 교육은 암기 위주의 공부라고 하였다. 통일 후 이런 인식의 차이와 방식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미리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통일 전 교육과 통일 직후 교육을 잇는 완충적 역할을 기대한다. 따라서 본고의 논의를 시작으로 향가의 인식 차이를 역사적 관점으로 받아들이고 통일 신라의 정통성에 대한 남북한 인식 차이를 극복하여 진정한 통일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본고가 그 완충적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역할을 향가가 할 수 있다고 보았고,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논의가 후속 논의로

필요하다고 보았다.

제언점으로 국어 교과서에 남북한 향가 인식차이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기를 바란다. 한국사 교과서가 통일 신라에 대한 관점을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 측면으로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소통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이처럼 국어 교과서에서도 향가 수용에 대한 남북한 차이를 제시해 주면, 북한 문학 작품에 대한 인식과 수용의 차이를 인지하고 통일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넓혀 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국어 교육에서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통일 교육이 될 것이며 통일 이후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본 논문은 2017. 1. 31. 투고되었으며, 2017. 2. 14. 심사가 시작되어 2017. 3. 9.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강혜선(2005), 「남북한 한문학 연구의 비교 시론」, 『한국문학논총』 39, 5-28, 한국문학회.
- 권순희(2014), 「북한이탈 주민의 언어 사용 실태와 교육 지원 방향」, 『이화어문학회』 34, 91-23, 이화어문학회.
- 김대행(1990), 『북한의 시가 문학』, 문학과 비평사.
- 김양희(2005), 「북한의 문학 교육: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시 교육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15, 169-21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김일성(1980a), 『김일성저작집 05: 문학예술인들의 창작사업에서의 결합』, 조선로동당 출판사.
- 김일성(1980b), 『김일성저작집 10: 작가들을 당의 사상으로 무장』,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1983a), 『김일성저작집 25: 북고주의적 경향 반대』,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1983b), 『김일성저작집 22: 주체의 혁명적 본질』,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재용(1994), 『북한문학사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 지성사.
- 김하명(1959), 『공산주의 교양과 고전문화유산, 과학원 언어문 학연구소 문학연구실 편: 공산주의 교양과 우리 문학』, 과학원 출판사.
- 김형양 외(2014), 『북한의 우리문학사 재인식』, 소명.
- 남승우(2005), 「북한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학논총』 39, 59-87, 한국문학회.
- 리창유(1993), 『조선고전 문학문연구 1: 우리식 문학건설에서 고전문학이 노는 중요역할』, 문학 예술종합출판사.
- 박길남(2010), 『조선사회과학학술집 125 문학편: 조선중세시조사연구』 2판,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박승희(2000), 「남북 화해와 북한의 서정시,《시와 반시》」 겨울호, 194.
- 박종원·류만(1986), 『조선문학개관 I, II』, 인동.
- 박현용(1989), 『조선문학통사 (상)』, 화다.
- 선우상영(2002), 『광복 후 북한 현대문학연구』, 역락.
- 설성격·유영대(1990), 『북한의 고전문학』, 고려원.
- 손대오(2005), 『한국 고전문학의 의식지향』, 국학자료원.
- 신형기·오성호(2000), 『북한문학사』, 평민사.
- 이명재(1998), 『북한문학의 이념과 실제』, 국학자료원.
- 이인제 외(2000), 『남북한 초·중등 국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통합 방안 연구』,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
- 정소연(2012), 「『三國遺事』에 나타난 고전시가 수용 방식 과 현대적 의의」, 『국어교육』 138, 223-257, 한국어교육학회.
- 정소연(2015), 『조선 전·중기 시가의 양층언어문학사』, 새문사.
- 정운채 외(2011), 『고전문학을 바라보는 북한의 시각』, 박이정.
- 조동일(1994), 『한국문화통사 1권』, 지식산업사.

- 최용권(2007), 『북한의 고전한시 연구』, 푸른사상.
- 최홍원(2014), 「북한 고전문학 연구의 발전적 수용과 과제」, 『한국어문학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311-332.
- 한만길 외(1998), 『민족통합을 위한 교육대책 연구(II)』, 연구보고서 No. RP98-10, 한국교육개발원.

〈북한교과서 목록〉

- 미상(1984), 『교수요강』, 교육위원회 보통교육부.
- 미상(1989), 『국어문학 고등중학교 1-6』, 교육도서출판사.
- 미상(2001), 『조선력사 고등중학교 3』, 교육도서출판사.
- 미상(2009), 『국어 고등중학교 1-6』, 교육도서출판사.
- 미상(미상), 『국문강독: 교원대학용』.

〈한국교과서 목록〉

- 권영민 외(2013), 『문학』, (주)지학사.
- 김대용 외(2013), 『문학』, 상문연구사.
- 김윤식 외(2013), 『문학』, 천재교육.
- 김종철 외(2013a), 『국어 I』, 천재교육.
- 김종철 외(2013b), 『국어 II』, 천재교육.
- 김중신 외(2013a), 『국어 I』, (주)교학사.
- 김중신 외(2013b), 『국어 II』, (주)교학사.
- 김창원 외(2013), 『문학』, 동아출판.
- 도연희 외(2013), 『한국사』, 비상교육.
- 문영신 외(2013), 『국어 I』, 창비.
- 박영목 외(2013a), 『국어 I』, 천재교육.
- 박영목 외(2013b), 『국어 II』, 천재교육.
- 박종호 외(2013), 『문학』, 창비.
- 신동훈 외(2013a), 『국어 I』, 두산동아.
- 신동훈 외(2013b), 『국어 II』, 두산동아.
- 우한용 외(2013), 『문학』, 비상교과서.
- 윤여탁 외(2009), 『국어 II』, (주)미래엔.
- 윤여탁 외(2013a), 『국어 I』, (주)미래엔.
- 윤여탁 외(2013b), 『문학』, (주)미래엔.
- 이삼형 외(2013a), 『국어 I』, 지학사.
- 이삼형 외(2013b), 『국어 II』, (주)지학사.
- 이승원 외(2013a), 『국어 I』, 좋은책 신사고.
- 이승원 외(2013b), 『국어 II』, 좋은책 신사고.

이승원 외(2013c), 『문학』, 좋은책 신사고.
이승철 외(2013), 『국어 I』, 비상교육.
정채찬 외(2013), 『문학』, 천재교육.
조정래 외(2013), 『문학』, 해냄에듀.
조현설 외(2013a), 『국어 I』, 해냄에듀.
조현설 외(2013b), 『국어 II』, 해냄에듀.
한철우 외(2013a), 『국어 I』, 비상교육.
한철우 외(2013b), 『국어 II』, 비상교육.
한철우 외(2013c), 『문학』, 비상교육.

역사관에 따른 남북한 향가 수용의 차이

엄인영

통일 시대에 완충적 역할을 위한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 본고는 이를 위해 고전 시가 중, 통일 신라 시대 향가를 살펴보고 교육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통일 국가의 유구한 문화유산은 남북이 공통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며, 통일 시대에도 이를 통해 교육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향가의 수용 양상은 체제와 역사인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체제는 정치적 상황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역사인식은 교육적 논의까지 다루고 있어 교육적 활용을 위해 후자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남북한 역사 교과서를 살펴보고, 수용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았다. 남한의 역사 교과서는 통일 신라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역사적 평가의 긍정적, 부정적 평가의 두 측면을 교과서에 제시 하였고, 북한은 통일 신라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고려에 정통성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부정적 측면으로 제시 하였다. 이로 인해 향가 수용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남북한 국어 교과서를 통해 향가 수용 양상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았다. 남한은 통일 신라 전·후의 작품을 국어 교과서에 고루 실었지만, 북한은 신라 통일 전 작품만을 수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 교과서의 애매한 문장으로 남한 연구자에게 분류의 오류가 있었던 ‘정읍사’가 북한의 ‘교수 요강’, ‘고전 강독’의 두 책을 통해 살펴본 결과 향가로 분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한정된 자료를 통해 남한과 북한의

합일점을 찾아 교육적 방안을 모색해 보고, 현재 오류가 있는 자료들은 수정 보완하여 통일 교육에 완충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 가지 제안점과 후속 연구는 통일 전 국어 교과서에 향가 수용 양상의 차이를 반영하여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통일 시대에 발전된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곧 다가올 통일을 기대하며 통일 시대의 주역이 될지 모르는 지금의 청소년들에게 통일 교육은 다양한 수용 관점을 인지하고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는 배움의 기회가 국어 교과서를 통해서도 주어지기를 기대한다.

핵심어 국어교육, 역사 인식, 통일 시대, 통일 교육, 향가 수용

The difference of the way to accept Hyang-ga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fluenced by each of their views of history

Eum Inyoung

In the coming era of reunification, it is necessary to devise educational buffers preventing the clash of different views of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field of education. In the same vein, this thesis examines Hyang-ga written in the period of united Silla and suggests its implications to the education of reunified Korea. Silla was the first unified country founded in Korea and both of South and North Korea share its long and proud cultural heritages. This shared heritages are expected to present solutions to the anticipated educational clashes.

The way to accept Hyang-ga is differen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fluenced by each of their political systems and views of history. Since the view of history includes educational discussions, the songs are analyzed on the basis of the view. For the analysis, the history textbooks of South and North Korea are covered and the different ways to deal with the history are compared. In case of South Korea, its history textbook acknowledges the legitimacy of united Silla and proposes both positive and negative point of view toward the nation. However, in case of North Korea, its history textbook denies united Silla and only admits the legitimacy of Goryeo so that it suggests negative perspective on united Silla. This difference of history textbooks contributes to the different ways to accept the Hyang-ga.

In addition, with the Korean textbooks of South and North Korea, the different ways to accept the Hyang-ga are analyzed. While the South Korean textbook contains the various pieces of the songs written before and after the unification of Silla, the North Korean textbook only includes the songs written before the unification. In this course of the analysis of

North Korean references, “Jeongeupsa,” which was mistakenly classified by South Korean researchers who are influenced by the ambiguous sentences of the North Korean textbook, is found to be classified as the Hyang-ga.

As a preparation for the reunification, it is essential to reach to the agreemen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field of education by further investigation of the limited North Korean materials. Also, by correcting errors in the currently gathered materials, the buffers that will alleviate the clash of different educational perspectives should be developed. One suggestion for follow-up studies is to open up a forum where various opinions can be collected by applying the differences in the way of accepting the Hyang-ga to the current Korean textbook. To help today's Korean students prepare for the upcoming reunification, using various textbooks with different perspectives is indispensable, rather than limiting their thoughts within a few biased textbooks.

KEYWORDS Korean education, the view of history, the era of reunification, education for reunification, the way to accept the Hyang-ga